


(새희망의
디딤돌)



(새희망의
디딤돌)



새희망이 꽃피는 KT노동조합

얼어붙은 땅 툰드라는 북극해 연안의 동토지대입니다.
삼림한계선보다 북쪽에 위치한 이 극지에도 생명은 존재합니다.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끄는 루돌프 사슴, 바로 순록입니다.
툰드라 습지에서 자라는 각종 이끼류는
순록의 훌륭한 먹이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들 합니다.
노력과 헌신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올 한해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의 당연한 희망마저 빼앗아 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마른 들에 단비가 내리고 동토에도 꽃은 필니다.
1만 8천 조합원의 단결된 의지는 그 희망을 향했습니다.
이 준엄한 선택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3년을 준비합니다.
지난 3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의 3년을 전진하겠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약속과 책임을 엄중한 이정표로 삼고
희망이 찬란하게 꽃피는 노동조합을 건설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 오늘보다 성장한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조합원의 지지와 신뢰에 희망의 결실로 보답하겠습니다.

(새희망의
디딤돌)

KT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16일간의 희망기록 새로운 KT를 만드는 ‘희망 디딤돌’ 캠프가 움직이다

이제는 조합원이 미래다

정운모 후보가 제12대 KT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결심했다. 현재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그가 다시 위원장직에 도전하겠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최근 회사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노동조합이 이룬 성과보다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먼저 떠올렸다. 이번 위원장 선거의 의미 역시 바로 그것에 있었다. 그는 이번 위원장 선거가 새로운 변화와 화합의 노동조합을 이끌 조합원들의 선택이자 기회라고 여겼다. 다가올 위원장직은 누가 봐도 힘든 자리다. 그러나 정후보는 조합원을 먼저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조합원의 희생이 아닌 결실을 이룰 차례라는 목표만이 분명해졌다.

정후보의 위원장 출마 선언은 조합원의 힘으로 더 큰 희망을 일구겠다는 선언이었다. 정후보는 조합원만을 믿고 가기로 했다. 그에게는 누구보다 사명감과 소신으로 가득 찬 조합원들이 든든한 버팀목이자 힘이었기 때문이다.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KT노동조합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두드립니다.

지난 3년이 험겨운 인고의 세월이었다면, 앞으로 3년은 지금까지의 희생과 인내를 보상받는 결실의 시간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정운모는 여러분의 열정과 저력을 바탕으로 기필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안정 시대를 열겠습니다.

쉽 없는 현장 순회로 집약된 지난 집행부의 장점은 흡수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의 자존심과 뜻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와 편의를 위한 정책 활동에 더욱 정진해, 경험 많은 후보로서의 위상을 검증 받고, 노동조합의 새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한발 더 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내다보고 더 깊이 움직이는 선거를 치를 것입니다.”

정후보의 선거 캠프 본부장으로는 양정우 전북지방본부 위원장이 맡았다. 그는 위원장 선거가 단순히 한 명의 개인 후보를 뽑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닌 조합원의 결실을 맺는 향후 3년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그에게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대립과

혼란이 아닌 화합과 약속에 있었다. 그는 정후보와 함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위한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그가 옆에서 늘 지켜본 정후보는 누구보다 나눔과 비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자리와 직위를 떠나 늘 헌신적으로 일해 온 사람이었다. 선대본부장이라는 중책을 털어 맡을 수 있었던 것 역시 한결 같았던 정후보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조합원의 잃어버린 자존심과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원장 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정식으로 정후보가 찾아간 곳은 서초사옥이었다. 현직 위원장으로서가 아닌 후보로 조합원을 만나는 첫 자리였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현장 조합원의 고충을 백퍼센트 대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정후보 스스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날 현장에서 듣는 조합원들의 쓴소리는 더욱 엄중하게 다가왔다. 물론 반갑게 맞아주는 손길과 미소도 있었지만 그런 응원 역시도 앞으로의 약속에 대한 준엄한 채찍질이기도 했다.

정후보에게 위원장으로서 지난 시간은 뿌듯함 보다는 아쉬움의 마음이 더 한 3년이었다. 지난해 ‘황금주파수’ 투쟁의 성과와 정치적 시위가 아닌 일터와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매진한 보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흘린 땀만큼이나 아픔과 시련 역시 크기도 했다. 노동조합에 국한된 노사 이슈 외에도 KT를 둘러싼 국내외 통신시장에 어려움이 참 많았던 시기였다. 유선통신 시장의 가파른 내리막길과 함께, 무선통신 시장의 포화는 조합원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경쟁 통신사는 물론 무료 통신대체 서비스를 하는 새로운 업체들이 속속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파도는 거셌다. 위기는 늘 잇따라 온다고 했던가. 창사 이래 첫 적자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영업 정지 등 각종 악재가 꼬리를 물었다. 위원장 시절 그 고통을 나누고 때에 따라 조합원과 회사 모두를 살리기 위해 가슴 아픈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다.

“지난 3년간 노동조합과 현장이 걸어온 여정은 희생과 양보, 고통과 인내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노동조합과 현장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이 결단코 무너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원점으로 되돌려선 안 됩니다.”

지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00년 역사의 국민기업 KT를 지켜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조합원들의 피와 땀이었음을 정후보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희생과 양보의 지난 시간을 겪어온 자신만이 향후 그 결실의 3년을 희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부했다.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풍부한 경험을 잘 알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파도에 떠맡겨진 노동조합의 배의 키를 대안 없이 비



12대 위원장 선거 전단



11월 3일, 서울 서초 사옥 방문



11월 4일, 부산 유세

난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현장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에게 맡길 수는 없었다.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복지였다. 이와 상관없이 정치적 입지강화에 만 주력하는 이들에게는 조합의 미래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정후보는 조합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지난 3년 조합원들이 가졌던 아픔과 양보를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디딤돌로 만드는 데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조합원들이 정후보의 새로운 도전과 정책 기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조합원들과 함께 결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정후보가 호소하자 현장 조합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호했다.

변화의 조짐 – 조합원, 과거와 혼란이 아닌 경험과 내일을 선택하다

정윤모 후보는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며 현장 조합원들을 만났다. 어쩌면 위원장 후보자로서는 선거기간 조합원의 지지와 한 표를 호소하는 당연한 유세이기도 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귀한 시간이었다.

위원장 시절에도 여러번 조합원을 직접 만나 불만과 요구사항을 들은 바 있는 그였지만, 후보자의 마음으로 듣는 조합원의 목소리들은 더욱 값지고 귀중하게 다가왔다.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토대로 정후보 선거캠프는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내용들을 우선 엄선해 과제로 구체화 시켜 약속으로 정했다. 아무리 듣기 좋은 공약과 말이라도 현실성이 결여되면, 무의미할 뿐임을 정후보는 위원장 경험으로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실현 가능성이었다.

유권자인 조합원들 입장에서 귀에 쏙 들어오는 달콤한 공약에 솔깃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러한 공약은 사실 누구나 말할 수 있다고 정후보는 생각했다. 정후보는 현실성에 최우선을 두었다. 선거 기간 동안 조합원들 앞에서 했던 약속이 허무맹랑한 구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임이 따르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함을 강조했다.

선거 중반에 접어들자 희생으로 회사를 지켜낸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정후보의 진심이 통하기 시작했다. 그의 의지에 힘을 보태는 조합원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

네거티브 없는 ‘아름다운 선거’를 꿈꾸다

네거티브 없는 선거문화정착을 위한 정윤모 후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 진영에서는 끊임없는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했다. 흠집 내기와 비난의 구태 역시 여전했다. 정후보는 시대변화와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무시하는 과거 방식의 노동조합 투쟁에는 결코 대안이 나 해답이 없음을 직시했다. 이러한 판단은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1월 5일, 대구 유세



11월 6일, 서울 광화문 사옥 방문 및 유세



11월 7일, 서울 강남 사옥 방문 및 유세



11월 10일, 전남지방본부 방문 및 유세

진정한 투쟁은 내 일터를 사수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바탕 위에 펼쳐져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조합원들은 지지를 보였다. 끈질기게 현장의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과 후보에게 조합원들의 시선은 점점 냉랭해져만 갔다.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한탕주의적 네거티브가 극에 다다르자 절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무책임한 네거티브 공세는 변화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었다.

어느 때보다 지치고 힘든 조합원들에게 위원장 후보들은 변화와 새로움을 제시해 조합과 회사를 바꿔 희망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선거기간, 정후보에게 희망을 말하며 서로 멋진 경쟁을 펼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기간이었다. 미래를 말하며 경쟁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했다. 그래서 일일이 네거티브에 대응하기 보다는 조합원들만 보고 가기로 했다. 그것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 후보 측은 선거 막바지에 이르자 일부 선거 규정 등을 문제 삼아 현 노동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네거티브 선거는 오히려 역풍을 부르고 변화의 정당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이다. 조합원들이 선택이 분명해지는 시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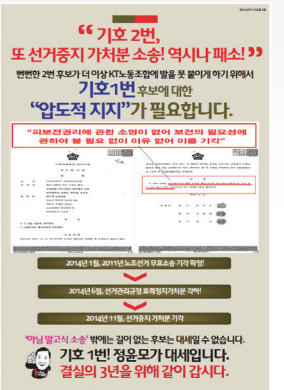
조합원이 승리한 선거, 이제 희망을 이야기 합시다

2014년 11월 19일 오전 아홉시, KT본사지부를 비롯한 전국 247개 지부에 마련된 433개 투표소에서 제12대 위원장 선거가 일제히 진행되었다.

후보자들에게 이번 선거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에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함께 따른 선거였다. 또 그 만큼 일만 팔천 조합원들의 변화와 희망에 대한 염원을 확인한 선거이기도 했다. 위원장 선거 투표 결과, 기호 1번 정윤모 후보가 총 12,115표로 71.4%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2대 위원장 당선에 확정되었다. 조합원들은 KT노동조합의 새로운 시대를 선택했다.

당선 소식을 접한 정후보는 제일 먼저 선거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만났던 수많은 조합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제 그 얼굴들에 희망의 웃음을 꽃 피우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출정식 때 밝혔던 약속과 각오의 말이 다시금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원칙과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저는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모두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11월 18일, 법원 KT노조 위원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11월 19일, 12대 위원장 선거 정윤모 후보 당선

웃음과 황당함에 감동까지 플러스! KT노동조합 12대 위원장 선거 유세 현장 이모저모

지난 11월 19일 KT본사지부 등 43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제12대 KT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서 정윤모 위원장이 1만 6,951명의 투표인 중 71.46%인 1만 2,115표를 획득하여 당선을 확정지었다. 특히 11월 3일 서울 서초사옥 방문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이어진 유세기간에는 전국 각 지방본부를 발로 뛰며 어느 때보다 많은 조합원들을 만났다. 미처 알지 못했던 선거 유세 현장의 뒷이야기. 긴장감 속에도 웃음과 감동이 가득했던 그 현장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조합원들의 환대에 피로가 싹~!

11월 10일 전남지방본부를 찾은 정윤모 후보. 이날도 핵심 공약을 선전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를 수렴하며 새로운 결실의 3년을 약속했는데, 조합원들은 정후보가 모습을 드러내자 일손을 멈추고 환대하며 인사와 공약이 끝나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그 틈에서 한 조합원은 “힘든 자리, 다시 힘을 내달라.”는 격려와 함께 건강음료를 손수 정후보의 손에 쥐어주어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선거활동을 마치고 나서는 길에 정후보는 ‘조합원들의 애정과 KT노조에 대한 기대를 온몸으로 느꼈다’며 하루의 피로가 싹 물러갔다고 웃으며 토로했다.

때 아닌 마라톤

부산지방본부로 이동하던 날은 일정이 좀 늦어졌다. 퇴근 무렵이 되어서야 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정후보를 기다린 조합원들은 퇴근이 대수냐는 듯 반갑게 악수를 건네고 일부에서는 줄을 서서 후보를 맞이하는 열의를 보였다. 그에 화답하듯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오르내리며 목소리마저 한층 높여 순회를 이어간 정후보. 정신 없던 일정이 마무리 되고 숨을 고르는 정후보와 일행들의 등줄기는 마치 하프 마라톤을 한 듯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한 표의 비결은 믿음직한 연설에서

선거 전략에 있어서 스피치의 능력은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실질적인 공약과 함께 조합원들이 원하는 위원장의 ‘카리스마’에 집중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거기에 조합원들과 감정을 교류하는 진심, 그리고 신뢰감과 리더로서의 이미지도 함께 심어줘야 한다. 냉정하면서 열정이 넘치는 정후보의 연설은 그런 의미에서 성공적이었던 모양이다. 지난 11월 20일 정후보가 재선에 성공한 것을 지켜본 한 조합원은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위원장 연설 솜씨 때문에 갈팡질팡하던 마음을 결정했거든!”

정후보의 구겨진 체면?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에도 전국 곳곳을 누비는 유세 기간에는 제대로 식사를 챙길 틈도 없기 마련이다. 대충 끼니를 때우는 횡수가 많아지자 정후보는 함께 고생하는 캠프 식구들을 직접 챙기기에 나섰다. 큰맘 먹고 찾아간 한 감자탕집. 신발을 벗고 상에 앉으려는 찰라 모



두의 시선이 쏠리는 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정후보의 양말!

“저기... 양말에 뽕구가...”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온 발가락 덕에 정후보와 모두는 너나없이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비록 양말에게는 가혹했을 지 모를 그 흔적은 두발로 뛰며 조합원들을 만난 희망의 증거에 다름없었다. 그날 이후 정후보의 구멍 난 양말은 응원과 격려의 아이콘이 됐다는 후문이다.

동향이라는 동질감이 신뢰로

후보등록 후 첫 방문지는 서초사옥이었다. 많은 조합원들은 정후보의 등장에 환호했고, 일부 간부들은 바쁜 업무 중에도 함께하는 열의를 보였다. 3층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한 젊은 조합원이 정후보의 무리를 향해 달려와서는 “혹시 정위원장이 부산 00초등학교 출신이 아니시냐?”며 반가움을 보였다. 그는 “그 학교에서 인물이 많이 난다.”며 선배에 대한 예의와 격려로 90도 인사를 ‘꾸벅’ 건네고는 수줍게 총총 사라졌다. 동향이 불러오는 동질감과 신뢰의 영향력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순간이었다.

목소리에 반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조합원을 만나는 정후보. 그만큼 선거캠프에서는 후보의 외모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에 평소 안 바르던 로션까지 바르는 정후보였지만 정작 조합원들에게 어필한 것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중후한 목소리! 감동을 주는 명배우 중에는 얼굴보다 목소리가 훨씬 멋진 이들이 많다는 사실. 충남지역 유세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정후보의 목소리를 듣고는 마음을 확실하게 굳혔다고 했다. 역시 진실과 신뢰를 전달하는 데는 잘 꾸민 외모보다 믿음직한 목소리가 한 수 위다.

희망 무지개가 떴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11월 17일. 정후보의 휴대폰에 사진이 첨부된 문자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확인해보니 바로 무지개 사진이었다. 일주일 전 광주 유세에서 만났던 조합원이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며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보내온 것. 사진 속에는 비가 그친 하늘에 펼쳐진 무지개가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지치고 힘들 때 그 무엇보다 힘이 됐던 무지개! 그 무지개처럼 정후보는 조합원들에게 참된 희망으로 보답할 것이라 굳게 약속했다.

앞선 고민과 활동으로 모범이 되는 KT노동조합을 기대합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경기침체를 이유로 우리 노동자들의 크지 않은 권리마저 축소 시키려는 시도가 노골화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그것도 산업의 변화속도가 가장 빠른 ICT 업계에서 현장 노동조합을 꾸려내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지난 임원선거에서 재선하시어 또다시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신 정윤모 위원장 동지를 비롯한 모든 간부들께 다시금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은 저에게도 참으로 바쁘고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금년 1월 선거인대회에서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각급조직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노총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말을 지나 2015년에도 노동권을 사수하기 위한 노총의 투쟁이 더욱 가열차게 이어져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바쁨을 이유로 현장 찾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상층의 교섭과 대응에만 매몰돼 현장과 멀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의 기본인 자주성과 민주성, 투쟁성의 강화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핵심에 KT가 있는 만큼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에 있어서도 KT노동조합이 앞선 고민과 활동으로 타 산업 노동자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개척해 주셨으면 합니다.

KT노동조합이 21세기 한국 현장노동조합의 혁신과 발전을 앞장 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현장과 노총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혁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에도 KT노동조합 모든 조합원과 식구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T연맹의 위상을 더욱 높여 주시길!



세종텔레콤 노동조합 안재홍 위원장

33년 KT노동조합 역사상 위원장 연임은 단 2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선 소식을 듣고 KT조합원 못지않게 우리 세종텔레콤 조합원도 기뻐했습니다.

대한민국 통신업체 중 KT가 유일하게 중소기업체와 상생을 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2사업자인 세종텔레콤의 경우 매출의 상당부분을 KT가 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이는 KT노동조합과 KT가 제2사업자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IT연맹이 이번 정윤모 위원장님의 재선으로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에 대해서도 IT연맹 33개 회원조합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정윤모 위원장님의 재선을 기회로 우리 IT연맹이 더욱 높은 위상과 영향력으로 ICT노동계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세종텔레콤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IT연맹의 모든 회원조합 위원장의 이름으로 축하드리며 건승을 바랍니다.

노사가 함께 손잡고 기업간 벽을 허무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송춘섭 위원장

개인적으로 큰 조직의 리더라고 하면 권위적이고 딱딱할 것이라는 저의 선입견을 깨 주신 분이 바로 정윤모 위원장님이십니다.

저 역시 25년 만에 처음으로 경선을 통해 당선이 된 장애인고용공단노동조합 첫 번째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정위원장님의 리더십을 모델로 삼아 많은 면에서 닮아가고 본받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KT노동조합에도 오랫동안 연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축하드리고 또 IT업계를 생각해서도 정위원장님의 재선이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단순히 조합원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며, 같은 UCC 회원사의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노동계에서의 역할뿐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에도 열심히 힘을 보탬 계획입니다.

쌓인 경험만큼 연습 없이, 혼란 없이 새 희망 완성하리라 믿습니다.



참여와 혁신 박승호 대표

KT는 대한민국 ICT 역사의 산증인이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안팎으로 답답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12대 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 당선자는 “새 희망의 디딤돌”을 내걸고 인내와 고통을 밀거름 삼아 움튼 새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스며든 공허함과 냉소를 노동조합의 단결력으로 이겨내길 기원합니다. 누구나 알듯이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기엔 현실과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회피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난 3년 경험을 밀천삼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조금씩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갈 거라 믿습니다. 정윤모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간부들과 조합원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는 일터를 만들어 새로운 노동조합활동의 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도 노동조합이 희망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다시 한 번 정윤모 위원장님의 재선을 축하드리고 뚜벅뚜벅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KT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더 나은 KT를 만드는 '희망의 디딤돌' 제12대 집행부에
바라는 한명 한명 소중한 조합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본산지방본부 물류센터 안준근
변화와 소통, 강한 노동조합! 물류센터 지부장님으로부터 일일소

식지를 받을 때마다 소식지 가장 상단에 써 있는 글입니다. 한발 빠른 소식을 조합원에게 전달하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든든한 뒷받침이 있다는 생각에 한결 마음이 푸근해 집니다. 한발 더 나아가 우리 노동조합의 위원장님이 전국 IT사무서비스노동조합 연맹 위원장님이라는 사실에 더욱 우리 회사 노동조합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의 목소리

를 많이 듣고, 양 방향 소통이 되는 노동조합과 든든한 후원이 되는 강한 노동조합을 만들어 주세요.



충남지방본부 대전유성지부 유대현
흔히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합니다. 부디 더욱

더 정진해서서 발로 뛰는 노동조합,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동조합, 조합원과 함께 살아 있는 노동조합, 신뢰받는 노동조합의 바로미터이자 교과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동대구지부 영업부 영업2팀 김시철
20년 근무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 넷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

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타회사에 비해 복지부분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다동이 가족에 대한 복지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팀에는 저를 포함하여 다동이 가족(자녀 3인 이상)이 많습니다. 다동이 가족에 대한 복지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아이 넷의 가장으로서 더욱 신바람 나는 회사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무선코어망제어팀 이재연
요즘 “아직 살아 있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 드라마 「미생」의

인기가 높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 수 한 수 돌을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직장생활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드라마 미생에 폭 빠져 있던 중 원작가인 만화가 윤태호씨의 인터뷰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3년…… 그가 이 만화를 만들게 되기까지 인고의 시간입니다. 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통해 빛은 아름다운 노력이 있었기에 걸작이 탄생되었고, 바둑과 직장생활이라는 소재에서 바둑은 향기로만 존재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시절 정윤모 위원장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죽을힘을 다해 결실의 3년을 이끌겠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난 3년의 희생에 대한 결실을 만들어 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 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에게 말했던 공약중 이것만은 꼭 해줬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1. 고용불안 척결, 2. 임금 두 자릿수 인상, 3. 현장 5대 약속 일소입니다. 미생의 윤태호 만화가가는 지난 3년간을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인고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후보시절 위원장께서는 지난 3년간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단내려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업무용폰 지원 등 조합원이 느끼는 결실의 바람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의 결실의 시간과 30년의 회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작은 것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무엇이 조합원과 더 나

아가 회사를 위한 것인지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며 소통하는 위원장이 되어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서대구지부 영업부 영업팀 박문숙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 없이 회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건전모임 등 다양한 활동 확산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각종 기념일 조기 퇴근 및 가족행복의 날 정착, 매년 예산 배정 시 절감추진으로 인한 현장 가용할 예산이 많이 부족함에 따라 기존업무에 필요한 예산 적극 지원, 자녀 학자금 폐지에 따른 가계부담 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꼭 이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남유선운용센터지부 여수도서통신팀 유영운
어느 드라마에서 우리 모두는 '완생'을 향해

죽을 때까지 나아가는 '미생'들이라고 하더군요.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러하듯 위원장님께서도 때론 거친 길을 끊임없는 장애물을 헤치며 걸어오셨고, 또 걸어가실 것입니다. 부디 어렵고 외로운 그 길에 열정과 패기를 더 하셔서 KT노동조합과 KT가 완생을 향해 또박또박 참길을 걸어가는 노동조합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주지방본부 네트워크운용센터 전송망기술팀 강정임
다가올 12대 집행부

출범에 무척 기대가 큼니다. 11대에 이루지 못했던 사업도 12대에는 깔끔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조합원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주시고, 또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산지방본부 부산 Biz 담당 남부산 Biz 영업부 김정태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로

마케팅 분야 역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지원 및 업무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과거 법인영업단 분리 → 지사 통합 → 다시 지사와 분리 등을 겪으면서 Biz 분야의 변동이 주로 많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상 고객도 법인에서 소호고객 포함, 빌딩 분야까지 대상 고객 변동이 있었습니다. Biz 직원에게 전문성을 요청할 때도 있었으며 멀티 플레이어를 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멀티 플레이어를 요구했을 때는 Biz와 Mass를 구분 짓기 어려울 정도로 Mass 영업에 무게가 실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전문성을 가지고 Biz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실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역에 KT의 사업지원 프로세스 강화를 위한 인력조직 총원이나 체계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리며 직원이 희망하는 3년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KT 노동조합 11대 집행부 3년의 발자취



